

“광주시정, 혁신·소통·추진력으로 안착”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이 시장은 그 동안 각계와의 전방위적 소통, 장기 지표 중핵심현안 정면 돌파, 인사·조직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안전을 위한 행보에 주력했다. 특히 행정전문가 답게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는 등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민소통

이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공을 들였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와 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제안 1,800여건에 대해 해법을 모색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소통·민원실·시정홍보 콘텐츠 제작기능을 통합한

광주형일자리·국비활동 ‘일자리 창출’ 시동 희망인사시스템·햇라인 개설 ‘혁신 드라이브’

■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1개월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해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17일에는 20개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의 장’을 갖고 도시철도2호선 등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감각 없이 의견을 들었다.

◇혁신·청렴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혁신정책관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외부청탁을 차단해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희망인사시스템과 시장 햇라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에서 잡음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청렴도 민선7기 핵심 화두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 자리 등을 통해 “시민이나 광주발전을 위해 의욕적이

로 일하면서 발생한 실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하겠지만, 부조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 청렴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역현안 해결

장기표류 중인 현안들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빠르게 정리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들어간데 이어 도시철도2호선도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시민의견을 반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은 찬바람이 불기 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비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취임 10여일만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안전부 장관·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는 등 광풍 행보를 보였다.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 시장’을 표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7기 첫 결재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안’과 ‘문화경제 부시장 임용계획’에 서명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 결정·집행 등을 맡게 된다. 또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문

화가 경제이고 일자리라는 신념 하에 기존 경제부시장 직위를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을 임명했다.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은 최근 투자방식 등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치고 8월 중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 안전

시민안전을 위한 행보에도 주력했다. 폭염이 장기화되자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속으로 보다 깊이 들어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자 임기 첫 날 오전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지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섭 시장의 하계휴가 이후 본격화될 민선 7기 광주시정이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황애란 기자

투데이뉴스

도,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지정 축산정책사업 신청서 인센티브

전남도가 연말까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00농가 지정을 목표로 축산농가 지도·관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7월말 현재까지 6개 축종에 78농가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28농가, 젓소 5농가, 돼지 10농가, 닭 24농가, 오리 4농가, 흑염소 7농가다. 전남도는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8농가에 대해 현장심사에 나선다. 이번 녹색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 인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 4가지 가운데 한가지 이상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심사는 가축 사육밀도, 축사 내부 정결상태,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농장 경관, 기록관리 등 2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지정농가는 농장 운영자금을 농가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 신청시 우선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근산 기자

청년비상금통장 인기 폭발 200명 모집에 2,589명 신청

광주지역 청년들이 ‘청년비상금통장’ 지원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도입해 200명을 지원하는 청년비상금통장에 총 2,589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청년비상금통장은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의 채무를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소액단기 저축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마련해 주는 지원사업이다. 비상금통장은 근로빈곤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내 저임금과 낮은 이직에 시달리는 청년들 다수가 신청해 사업 추진의 의미가 확산됐다는 평가다. 또,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해 열악한 고용환경에 있는 청년층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췄다. 청년비상금통장의 최종 선정자는 공개추첨을 통해 오는 7월 발표하고, 18일 통장 배부식을 열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팬아메리칸마스터즈’ 광주대회 홍보관 인기

지난달 27일 개관...5일간 1천여명 방문

2018 UANA(아메리카수영연맹) 팬아메리칸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가 열리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YMCA 아쿠아틱센터에 설치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관이 대회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팬아메리칸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랜드 YMCA 아쿠아틱센터에 ‘광주대회 홍보관’을 설치한 이후 모두 1,000여명이 방문했다. 조직위는 홍보부스를 설치해 광주수영대회 홍보영상 상영 및 리플릿·기념품 등을 나눠주며, 내년 광주대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상황과 주변관광지, 대표적 먹거리를, 교통·숙박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20일간 열리는 이번 팬아메리칸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에는 미국과 캐나다·콜롬비아·에콰도르·도미니카·파라과이·브라질·칠레 등 아메리카 대륙 29개 국가에서

2,500여명(350개 이상 마스터스클럽)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이번 팬아메리칸마스터즈 대회를 계기로 마스터스 핵심 타깃층 공략 등을 위해 아메리카·유럽 등 주요 국가연맹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및 동호인 미팅, 인쇄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광주대회 홍보를 전담할 ‘마스터스 홍보대사 프로그램(peer to peer program)’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기간 국제수영연맹(FINA) 마스터스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미국·중남미·남미지역 주요 마스터스수영협회 대표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들었다”면서 “미국과 멕시코·콜롬비아 등 아메리카는 물론 일본 등 아시아, 수영인구가 가장 많은 유럽 등 전 세계 마스터스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부터 팬아메리칸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랜드 YMCA 아쿠아틱센터에 ‘광주대회 홍보관’을 설치한 이후 모두 1,000여 명이 찾는 등 대회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기업유치·창업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김영록 지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31일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업유치와 벤처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공사·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문제는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며 “전남은 출산율이 있어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인구유출이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성과를 달성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출연기관들이 경영성과를 내고 수치타산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을 위해 성과를 내는 일이다”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해 실제 성과를 낸다면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정 슬로건과 관련해 김 지사는 “생명의 땅 전남에서 으뜸을 추가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항상 으뜸이란 목표의식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2018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

골드클래스(주)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발굴코자 협력사 신규모집을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등록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가. 모집부문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 2) 건축, 토목, 조경, 기전, 자재 등(첨부파일 참조)

나. 자격조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B 이상(이크레더블 외 신용평가 전문업체 동일등급 가능)
- 3) '17년 시장능력평가액 상위 40% 이내(자재업체 제외)
- 4) 건설업 영업기간 3년 이상

2. 등록기간 및 세부항목

가. 등록기간 : 연중상시
나. 제출서류 : http://www.goldclass.co.kr (팝업창 확인)

3. 접수처

가. E-mail 접수 : iomeg2@hanmail.net(외주) didinii@naver.com(자재)
나. 전화 : 070-4343-6350(외주-조달팀) 장승권(주인) 070-4343-6320(자재-조달팀) 강신애(과장)

2018년 신입 및 경력직 수시모집

1. 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구분	지역	인원	지원/우대사항
공사관리팀	건축(공사,공무)	경력	00명 -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시공업무 경력 유경험자 - 모집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신입:필수) - 초대졸이상 졸업자
	안전관리	신입	
	품질관리	경력	
고객지원팀	설비	의왕	0명 - 공동주택(아파트) A/S관리 경력자
	현장하자 관리	경력	
전북	전북	0명	

- 2.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및 입사
-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술인합회 발행본)
- 4.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im9499@hanmail.net)
-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 5. 문의사항 : 총무업무팀 062-233-3999(내선102)

